

Industry Comment

Korea / Banks

14 December 2012

OVERW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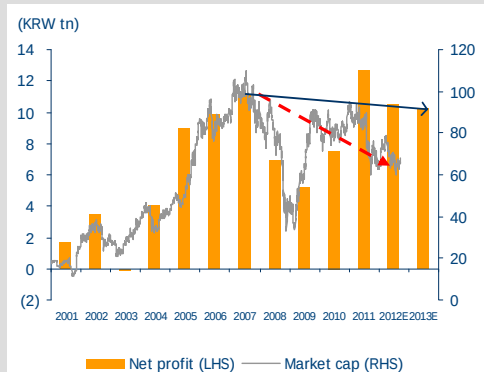


Stocks under coverage

Company	Rating	Price	Target price
신한지주 (055550 KS)	BUY	38,150	47,500
KB 금융 (105560 KS)	BUY	37,700	48,000
우리금융 (053000 KS)	BUY	11,350	15,000
하나금융 (086790 KS)	BUY	35,250	51,000
기업은행 (024110 KS)	HOLD	11,900	12,500
외환은행 (004940 KS)	HOLD	7,380	8,000
BS 금융 (138930 KS)	BUY	13,100	17,000
DGB 금융 (139130 KS)	BUY	14,000	1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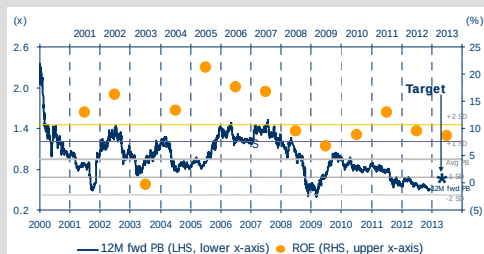
(주: 12월 13일 종가 기준)

은행업종 시가총액과 순이익



자료: 각 사,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은행업종 12개월 Fwd P/B, ROE, 목표 P/B



자료: 각 사,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강혜승, Analyst

3774 1903 heather.kang@miraesec.com

차인환

3774 3935 inhwan.cha@miraesec.com

은행

투자심리 개선 초입

12월 11일 한국은행은 10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데이터를 발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0월 중 2.6조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2%로 14개월 연속 둔화세 지속. 또한 한국은행은 12월 12일에, 11월 금융시장 동향 데이터를 발표, 11월말 기준, 은행 총 대출 잔액은 1,062조원으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으며, 은행계정 수신은 10월에 0.2조원 감소했다가 11월 중 7.7조 증가로 전환됨. 11월 29일 당사 보고서 "2013년, 은행업종センチメント 개선 전망" 발간 이후 은행업종 주가는 10.8% 상승하며, KOSPI 대비 6.1% 아웃퍼폼. 당사는 2013년에는 은행업종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주가가 상승하여 KOSPI 대비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규제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고, 2013년에는 NIM 하락세가 완화되며 특히 2분기 이후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은행업종에 대하여 비중 확대 의견 유지.

10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전월 대비 2.6조원 증가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의 가계대출은 9월 중 1.3조원 감소했다가 10월 중 2.6조원 증가로 전환됨.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3.2%로 14개월 연속 둔화세를 지속함.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 감면조치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기타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 이외의 가계대출)은 추석 연휴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으로 증가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9월 중 0.5조원 감소했다가, 10월 중 0.6조원 증가함.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월에 2조원 감소했다가 10월에 0.7조원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월 10월에 각각 0.7조원 2조원 증가함.

11월 금융시장동향: 은행 대출 +0.3% MoM, 은행계정 수신 +0.7% MoM

11월 은행 총 대출 잔액은 1,062조원으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 전년말 대비 5.1% 증가함. 기업 대출 잔액은 601조원으로 전월, 전년말 대비 각각 0.4%, 8% 증가했고, 가계 대출 잔액은 462조원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말 대비 1.5% 증가함. 당사는 캐버리지 은행의 2012년 말 원화대출금이 부실 자산 상·매각 후 전년말 대비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11월 금융시장 동향의 은행 총 대출 증가 추이를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3년 캐버리지 은행기준 원화대출금 성장률을 5.7%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계 및 기업 대출 성장률을 각각 3.7%, 7.2%로 예상함. 11월말 은행계정 수신 잔액은 1,129억원으로 전월 대비 0.7%, 전년말 대비 2.4% 증가함. CD 등을 제외한 총 은행 예대율(추정)은 11월 96.9%로 10월의 97.4% 대비 하락함.

현재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는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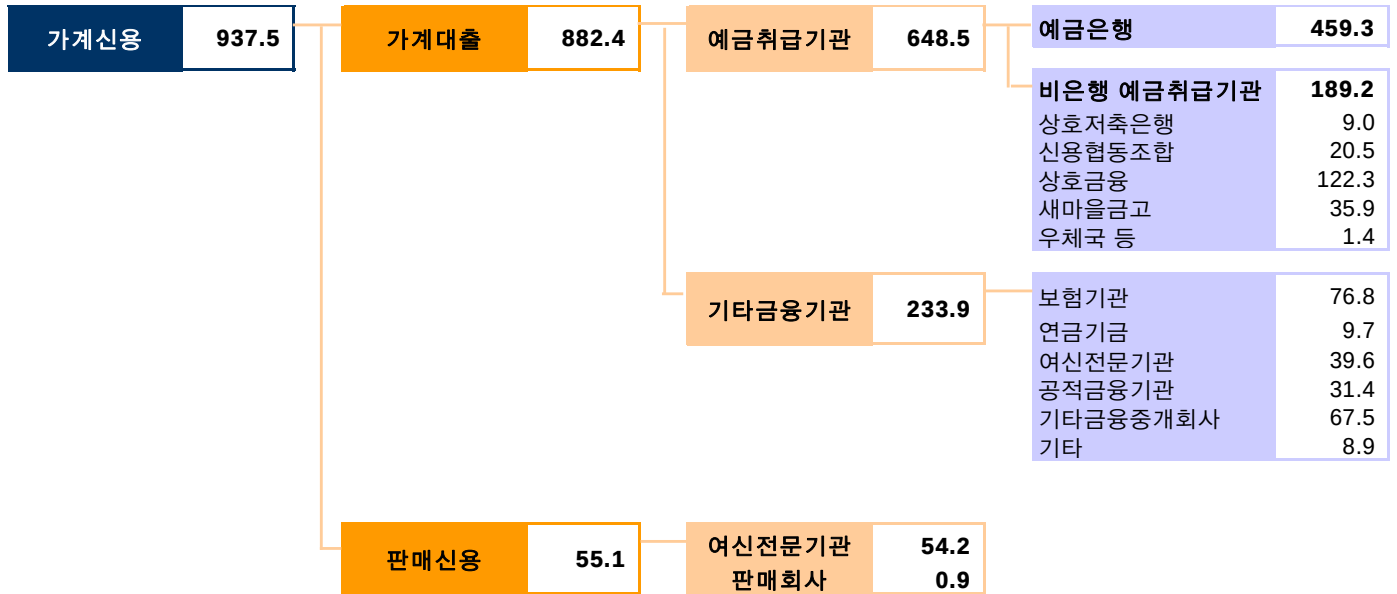
2013년에는 투자심리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 전망

1) 당사는 2013년 2분기 이후 은행의 NIM이 안정화되고, 2) 2012년 12월 대선 이후에 은행업종 관련 '추가되는' 규제나 부정적인 뉴스플로우의 빈도와 강도가 약화되고, 3) 2013년부터 BASELⅢ의 단계 적용이 실시되면서 불확실성과 우려요인이 점차 불식되며, 4) 국내 GDP가 (특히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당사 박희찬 Economist)되는데, 이는 은행업종 투자심리 개선을 이끌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2013년에는 외환은행 인수로 인한 향상된 경쟁적 이익 창출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금융과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업종 내 가장 건조한 대출 성장률과 수익성(ROE)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BS 금융을 top pick으로 제시함.

10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9월 전월대비 1.3조원 감소 → 10월에는 전월대비 26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는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과 기타금융기관(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 금융중개회사, 기타 등)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이다. 이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월 단위로 발표된다. 12월 11일에 한국은행은 10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를 발표했다.

Figure 1 2012년 3분기말 가계신용 현황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 2012년 10월말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1				2012				12.10월말
(단위:조원, %)	연중	1-10월중	9월중	10월중	1-10월중	9월중	10월중	잔액	
예금취급기관	46.1	37.6	1.4	5.7	11.5	(1.3)	2.6	651.1	
YoY(%)	7.8		8.5	8.5		3.7	3.2		
주택대출	29.2	23.6	2.0	3.0	7.1	0.0	0.2	399.1	
(주택담보대출)	31.6	25.3	2.0	3.2	8.3	0.0	0.4	397.5	
기타대출	16.9	13.9	(0.6)	2.7	4.4	(1.3)	2.4	252.0	
예금은행	24.4	21.3	0.6	3.2	5.5	(0.8)	2.0	461.3	
YoY(%)	5.7		6.4	6.5		2.2	1.9		
주택대출	19.3	15.8	1.0	2.1	4.8	(0.1)	0.4	313.7	
(주택담보대출)	21.6	17.4	1.1	2.4	6.0	0.0	0.6	312.1	
기타대출	5.1	5.6	(0.4)	1.0	0.6	(0.7)	1.6	147.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1.7	16.2	0.8	2.5	6.0	(0.5)	0.6	189.8	
YoY(%)	13.4		14.3	14.0		7.6	6.4		
주택대출	9.9	7.9	1.0	0.9	2.3	0.1	(0.1)	85.4	
(주택담보대출)	10.0	7.9	1.0	0.9	2.3	0.1	(0.1)	85.4	
기타대출	11.7	8.4	(0.2)	1.7	3.7	(0.6)	0.8	104.4	
상호저축은행	2.0	1.5	0.1	0.2	(1.2)	(1.1)	0.0	9.0	
신용협동조합	2.3	1.7	0.2	0.2	0.8	0.1	0.1	20.6	
상호금융	12.2	8.9	0.3	1.6	4.1	0.2	0.3	122.6	
새마을금고	5.0	4.2	0.2	0.5	2.6	0.3	0.2	36.1	
신탁우체국예금	0.2	0.0	0.0	0.1	(0.2)	0.0	0.0	1.5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의 가계 대출은 9월 중 전월 대비 1.3조원 감소했다가 10월에는 전월 대비 2.6조원 증가로 전환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3.2%로 14개월 연속 둔화세를 지속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 감면조치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기타대출(마이뉴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 이외의 가계대출)은 추석 연휴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으로 증가했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하면, 9월에는 전월대비 2.2조원 증가했고, 10월에는 3.2조원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9월중 0.5조원 감소했다가, 10월 중 0.6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월에 2조원 감소했다가 10월에 0.7조원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월, 10월에 각각 0.7조원 2조원 증가하여, 비수도권이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12월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경기 부진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하락,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 등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증가와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한계채주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주의 상환부담 완화 등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 및 분석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향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우려 -은행
손실흁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

평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부실화 위험대출(경락률 초과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 고위험대출(7등급 이하 연체자)은 1.1% 수준으로 은행 등의 손실흁수 능력을 감안할 때, 아직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한 일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시 부실채권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초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유도한 데 이어 은행권 자율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리스크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Figure 3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2. 10월 말 잔액
주택 담보 대출 합계	27.3	18.4	21.8	7.9	394.9
은행권	21.8	14.8	16.8	6	312.1
제2금융권	5.5	3.6	5	1.9	82.8
대출채권 양도분	9.7	7.3	6.1	14.3	0
양도분 포함시	37	25.7	27.9	21.9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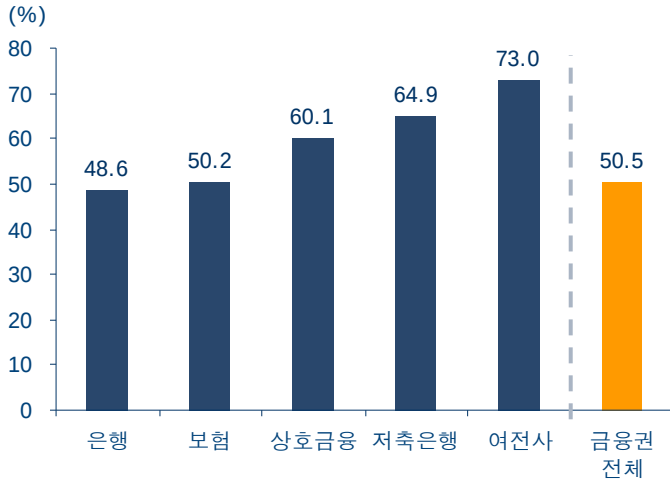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6월 말	2011년 12월 말	2012년 3월 말	2012년 6월 말	2012년 8월 말
전 금융권	1.01	0.80	0.88	0.72	0.87	1.05	0.95	1.15	1.15	1.32
은행	0.58	0.43	0.48	0.33	0.52	0.67	0.61	0.76	0.74	0.91
보험	1.03	0.83	0.74	0.51	0.51	0.47	0.45	0.53	0.60	0.68
상호금융	3.31	2.65	2.74	2.56	2.59	3.03	2.67	3.19	3.25	3.42
여전사	2.56	1.50	3.31	3.00	4.95	5.42	5.25	5.80	5.22	5.22
저축은행	8.80	6.22	8.69	10.07	8.79	8.96	8.14	8.04	9.33	11.58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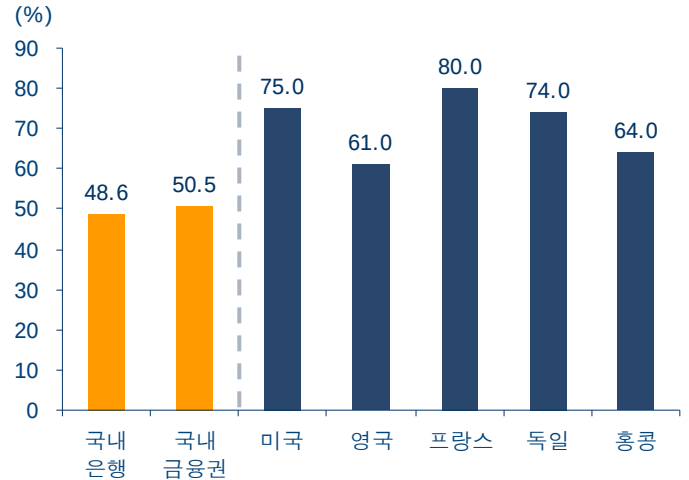
Figure 5 국내 금융 권역별 LTV 비율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2년 6월말 기준, 은행은 2012년 9월말 기준.

Figure 6 각국 LTV 비율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2년 6월말 기준, 은행은 2012년 9월말 기준, 주요국 2009년말 기준

Figure 7 비은행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규모 및 LTV 현황

	후순위대출 규모				평균 LTV (%)		
	차주수(만명)	비중(%)	금액(조원)	비중(%)	선+후순위	후순위	차이
상호금융	13.8	13.7	5.1	9.0	60.1	62.0	1.9ppt
저축은행	0.7	32.5	0.4	25.4	64.9	74.9	10.0ppt
여전사	0.6	41.5	0.3	24.4	73.0	74.1	1.1ppt
합계	15.1	14.5	5.7	9.7	60.5	63.4	2.9ppt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8 차주 신용등급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전체		저신용등급 (7-10등급)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차주수(만명)	(%)	금액(조원)	(%)
은행	381.8	311.5	23.1	6.0	18.3	5.9
보험	29.6	21.9	2.7	9.1	1.9	8.9
상호금융	101	56.3	18.2	18.0	10.8	19.2
저축은행	2.2	1.4	1	44.1	0.7	49.5
여전사	1.4	1.1	0.3	22.5	0.3	23.8
합계	515.8	392.3	45.2	8.8	32.1	8.2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NICE 신용등급별 비중을 기초로 작성

Figure 9 LTV 초과대출 현황

	차주수(만명, %)						금액(조원,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계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계
60% 초과	38.9	49.6	1.2	1.1	3.4	94.2	46.7	32.4	0.9	0.9	4.8	85.8
비중	10.2	49.1	53.8	80.0	12.3	18.3	15.0	57.5	64.7	84.7	22.0	21.9
70% 초과	6.8	15.1	0.8	0.9	0.5	24.1	8.3	16.4	0.6	0.8	0.7	26.7
비중	1.8	15.0	36.5	65.2	1.6	4.7	2.7	29.1	43.6	68.5	3.1	6.8
80% 초과	2.7	0.4	0.5	0.4	0.1	4.1	2.9	0.3	0.4	0.4	0.1	4.1
비중	0.7	0.4	22.9	31.0	0.3	0.8	0.9	0.6	28.5	34.3	0.5	1.0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2년 6월말 기준, 은행은 2012년 9월말 기준.

Figure 10 금융권 연체차주 현황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계
1.7	0.1	1.9	0.2	0.1	4.0	2.6	0.1	1.6	0.1	0.1	4.5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회사 평균 LTV 비율은 50.5%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금융권 LTV; 2008 년말 47.1%→2009 년말 47.5%→2010 년말 48%→2011 년말 48.1%→2016 년 6 월말 50.5%) 최근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지역(파주, 김포, 일산, 인천 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LTV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2012 년 6 월말 기준 은행권 LTV: 파주 54.2%, 김포 55.1%, 일산동구 53.8%, 일산서구 53.1%, 인천 54.2%, 전국 48.5%) 특히 여신전문회사(73%)와 저축은행(64.9%)의 경우 LTV 가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타 주요국 LTV 비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도래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왔다. 2013 년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의 62%가 만기 도래하며, 분할상환대출의 27.1%가 거치기간이 종료된다. 그러나,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률이 90%에 이르고 분할상환대출의 평균 만기는 15 년으로 장기에 걸쳐 상환되므로 실제 상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경락률 (2012 년 1 월-10 월 평균 76.4%) 초과대출 규모는 13 조원(3.3%), 19 만명(3.8% 수준)이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수도권 12.2 조원(18 만명), 지방 0.8 조원(1 만명)으로 수도권이 대부분(93.7%)을 차지한다. 권역별 경락률 초과대출 규모는 상호금융이 6.1 조원(11 만명)으로 가장 크고, 은행 5.6 조원(7 만명), 저축은행 0.5 조원(1 만명) 순이다. 경락률 초과대출이 각 권역별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축은행 32.3%, 여신사 28%, 상호금융 11% 순으로 비은행권이 높다.

Figure 11 2012 년 6 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별 현황

(조원, %)	2012년 중 (7~12월)	대출 종류 내 비중	2013년 중	비중	2014년 이후	비중	계	비중
일시상환	28.3	25.1	41.8	36.9	43.0	38.0	113.1	48.4
분할상환	8.5	7.0	24.3	20.1	88.0	72.8	120.8	51.7
합 계	36.8	15.7	66.0	28.2	131.0	56.0	233.8	100.0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1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률

(%)	2010	2011	2012. 1-9월
	94.3	90.4	90.5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13 경락률 초과대출 현황

	차주수(만명)						금액(조원)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사	보험	계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사	보험
수도권	5.8	10.8	0.6	0.2	0.6	18.0	5.1	6.0	0.4	0.2	0.5
지방	0.8	0.2	0.1	0.2	-	1.3	0.5	0.1	0.1	0.1	-
전국	6.6	11.0	0.7	0.4	0.6	19.3	5.6	6.1	0.5	0.3	0.5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2.6 월말 현재(은행은 2012.9 월말 기준)

Figure 14 저신용등급 다중채무 현황

	금액 기준(조원)		차주 기준(만명)	
저신용 다중채무	25.6	100.0	23.0	100.0
은행+은행	0.3	1.2	0.2	0.8
은행+비은행	18.3	71.6	16.0	68.6
비은행+비은행	7.0	27.2	7.0	30.7
고령층 저신용 다중채무	11.1	100.0	9.0	100.0
은행+은행	0.1	1.3	0.1	0.7
은행+비은행	8.0	72.3	6.0	68.4
비은행+비은행	2.9	26.5	3.0	30.9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1. NICE 신용평가정보 기준

주 2. 저신용등급이면서 3 개 이상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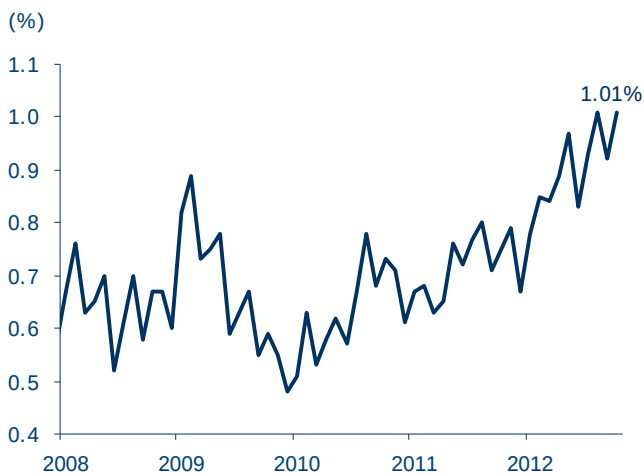
향후 감독방향 1)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다중채무 문제로 인해 은행 단독으로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하우스푸어대책 등)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채무조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가계 부채 대응 T/F 구성·운영: 금융감독원 내에 가계부채 대응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현황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부실 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4만명, 4.5조원), LTV 80% 초과대출(4만명, 4.1조원)의 리스크현황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예정이다. 4) 제2금융권의 가계 부채 관련 통계시스템 정비·구축: 각 금융회사별로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유도하며, 가계부채 관련 통계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5)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활성화: 11월중 규약개정 및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 등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가계부채 이슈는 2011년 이후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로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함께 제2금융권 부실화 우려가 존재하는데, 감독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은행권으로 위험이 전이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기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이나 집단대출 제외시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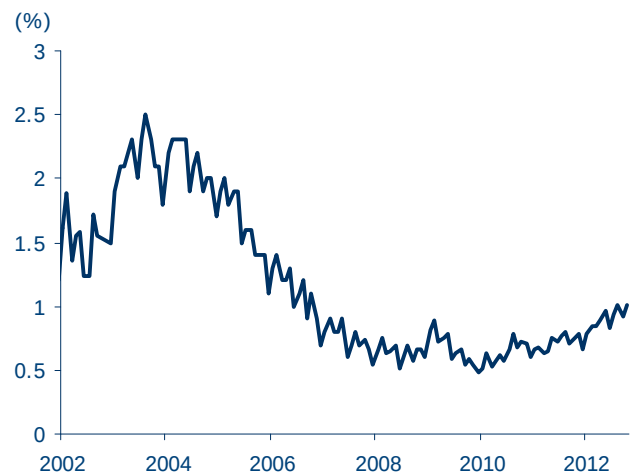
국내 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은 2012년 10월 현재 1.01%이며, 그 중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94%를 기록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주요국의 가계 대출 연체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려 요인이다. 집단대출 소송에 따른 연체가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 연체율은 0.7%, 주택담보대출은 0.4%인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대출 소송에 따른 연체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나, 1) 집단대출은 대한주택공사, 건설사 등이 보증하고 있고, 2) 주택 가격 하락에도 은행의 실질 LTV가 높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은행의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Figure 15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집단대출 연체 중심으로 상승 중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16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과거 위기시 대비 낮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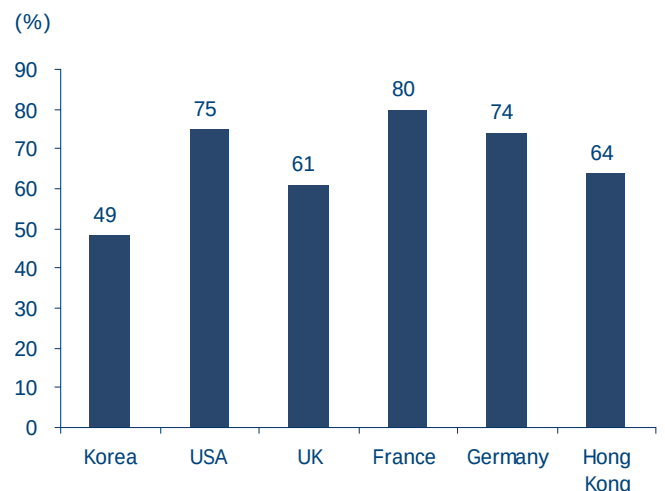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17 가계대출 성장률(YoY)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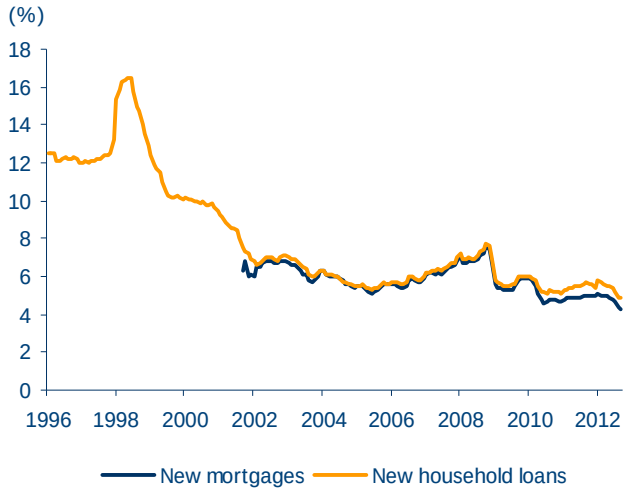
Figure 18 각국 LTV 비율



자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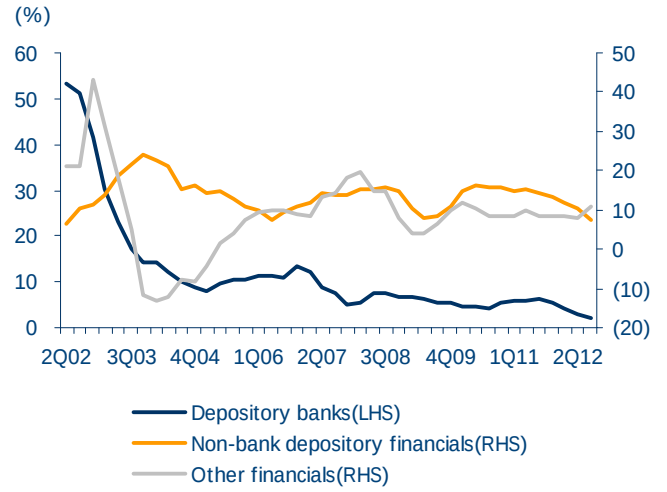
주: 2009 연말 기준 (한국 2012.6 월말 기준)

Figure 19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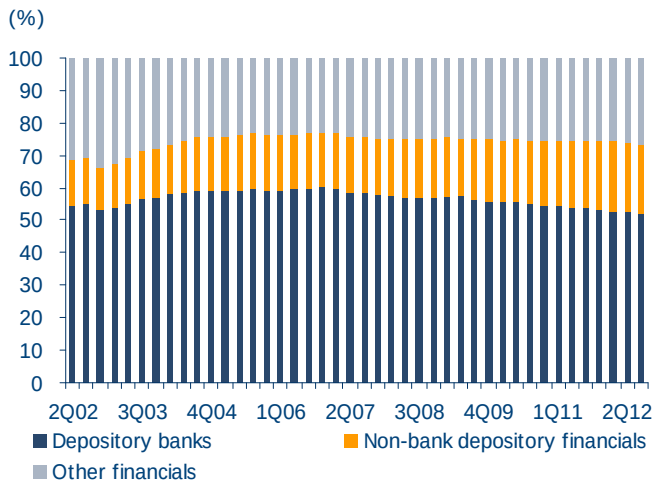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0 가계대출 성장률(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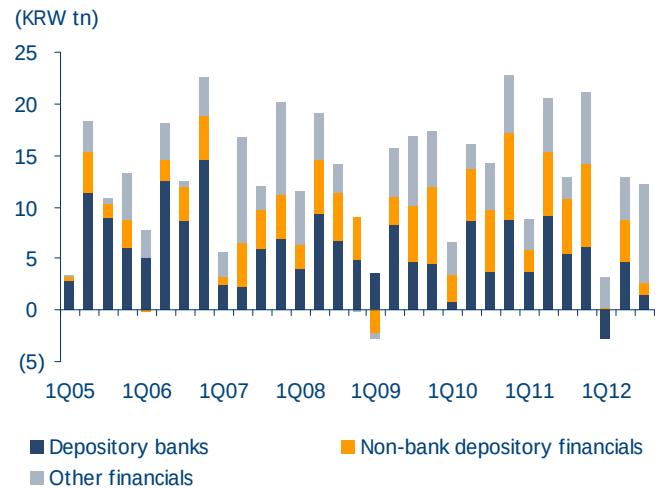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1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2 가계대출 증감액(QoQ)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3 가계부채 관련 대선 후보 공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고금리 대출 일부를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인당 1천만원 한도, 한시 운영)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지원	국민행복기금*으로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의 연체채권 매입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토록 채무조정 (시행 첫해 채무불이행자 연체채권 12조원 매입)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한 채권 발행으로 재원 확보 (최대 18조원 규모)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미연체 과다부채 채무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 채무자, 40-60% 채무자 일부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 실시
신용평가시 항변권 강화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사전 통보 의무화,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 소속)을 설치해서, 신용평가 이의조정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연체 학자금대출 일괄 매입 후, 취업 후 장기분할 상환 유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주택대출구조 개선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지속 전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으로, 금융기관에 장기 유동성 지원
피에타 3법 제·개정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이자율 상한 연 25%로 인하 - 이자제한법 개정, 위반 시 이자계약 무효화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 금지 - 공정대출법 제정 공정채권추심법 정비 - 채무자 대리인지정 인정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개인회생 기간 단축 (기존 5년->3년) 변제능력 상실 취약계층 구제 - 통합도산법 1가구 1주택 담보주택 경매 시 채무자 최소주거권 보장 파산자 재활 지원 기금, 금융기관 자율 조성
신용불량 회복을 위한 채무힐링센터 설립	압류금지 1인 1계좌 힐링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지원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가칭)민생침해사범단속본부’를 검찰에 상설화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보증지원을 통해 2,000만원 한도 10% 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확대 채무힐링센터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재활설계

자료: 새누리당 공식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공식 홈페이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4 하우스푸어 관련 대선 후보 공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분매각제도	KAMCO 등 공공기관이 주택 지분 일부를 매입, 매입지분을 담보로 ABS 발행 지분매각자는 매각대금으로 주택대출금 일부를 상환 지분매각자는 매입기관에 지분사용료(이자+수수료) 6% 지불 대상: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통해 주택대출상환 자금 조달토록 지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거주권 보장 대책 마련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에 대해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금지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

자료: 새누리당 공식 홈페이지, 민주통합당 공식 홈페이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1월 금융시장 동향: 은행 대출 +0.3% MoM, 은행계정 수신 +0.7%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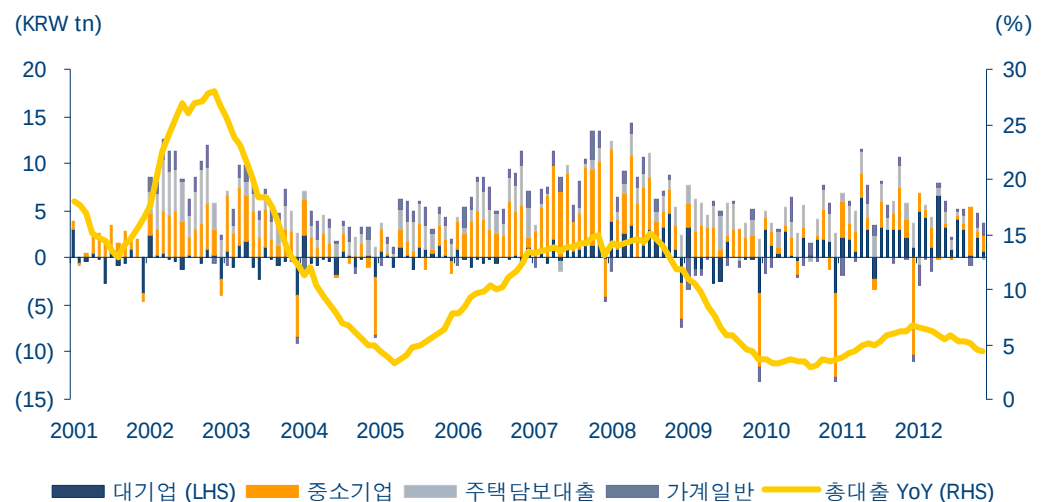
11월 은행 총 대출 잔액은 1,062조원으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 전년말 대비 5.1% 증가했다. 기업 대출 잔액은 601조원으로 전월, 전년말 대비 각각 0.4%, 8% 증가했으며, 가계 대출 잔액은 462조원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말 대비 1.5% 증가했다. 11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축소되었다. (2012년 10월은 전월비 +2.7조원→11월은 전월비 +2.4조원). 중소기업대출은, 전월비 1.7조원 증가하여 10월의 0.6조원보다 증가 폭을 확대했는데, 연말 실적평가를 앞둔 은행들의 우량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확대 노력 등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0.7조원 증가하여, 2.2조원 증가했던 10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는데, 경기 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 일부 대기업의 회사채, CP 발행을 통한 은행대출 상환 등에 의한 것이다.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10월에 전월 대비 4.7조원 증가한 데 이어, 11월에 5.1조원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한시적 취득세 감면혜택(9월24일 시행)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9월 2.1천호→10월 4천호→11월 4.7천호), 유동화조건부 적격대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당사는 커버리지 은행의 2012년 말 원화대출금이 부실 자산 상·매각 후 전년말 대비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11월 금융시장동향의 은행 총 대출 증가 추이를 볼 때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2013년 커버리지 은행기준 원화대출금 성장률을 5.7%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계 및 기업 대출 성장률을 각각 3.7%, 7.2%로 예상한다.

11월말 은행계정 수신 잔액은 1,129조원으로, 전월 대비 7.7조원, 즉 0.7% 증가했고, 전년말 대비 26조 즉 2.4%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전월중 세금 납부(9월말 휴일에 따른 9월분 법인세 등의 10월초 이연 납부, 10월말 부가가치세 납부 등)로 크게 감소했던 기업의 결제성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정기예금은 수신금리 인하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은행채는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순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0월에 전월 대비 11.8조원 증가했다가 11월에 전월 대비 3조원 감소했는데, MMF를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MMF는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 국고여유자금 유출 등으로 전월 대비 5.9조원 감소했고, 채권형펀드는 해외채권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면서 10월에 전월 대비 0.9조원 증가, 11월에 전월 대비 1.2조원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Figure 25 은행 대출 - 자금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6 은행 총 대출(기업 및 가계대출)

잔액(십억원)	Apr12	May12	Jun12	Jul12	Aug12	Sep12	Oct12	Nov12
은행대출	1,031.2	1,037.1	1,039.1	1,044.3	1,049.5	1,054.1	1,058.9	1,062.4
기업대출	577.6	581.3	582.0	586.5	590.2	595.6	598.4	600.8
대기업	132.0	135.2	136.2	140.2	143.2	143.4	145.6	146.3
중소기업	445.6	446.1	445.8	446.3	447.1	452.2	452.8	454.5
가계대출	453.6	455.8	457.1	457.8	459.3	458.5	460.5	461.6
주택담보대출	308.0	309.3	310.4	310.8	311.6	311.5	312.1	311.9
일반대출	145.6	146.5	146.7	147.0	147.7	147.0	148.4	149.7

증감액(십억원)	Apr12	May12	Jun12	Jul12	Aug12	Sep12	Oct12	Nov12
은행대출	7.7	5.9	2.0	5.2	5.2	4.6	4.8	3.5
기업대출	6.3	3.7	0.7	4.5	3.7	5.4	2.7	2.4
대기업	6.6	3.2	0.9	4.0	3.0	0.3	2.2	0.7
중소기업	(0.2)	0.5	(0.2)	0.5	0.7	5.1	0.6	1.7
가계대출	1.3	2.2	1.3	0.7	1.5	(0.8)	2.0	1.1
주택담보대출	1.0	1.3	1.2	0.4	0.7	(0.0)	0.6	(0.2)
일반대출	0.3	0.9	0.1	0.3	0.8	(0.8)	1.5	1.3

증가율(%, MoM)	Apr12	May12	Jun12	Jul12	Aug12	Sep12	Oct12	Nov12
은행대출	0.7	0.6	0.2	0.5	0.5	0.4	0.5	0.3
기업대출	1.1	0.6	0.1	0.8	0.6	0.9	0.5	0.4
대기업	5.2	2.4	0.7	2.9	2.1	0.2	1.5	0.5
중소기업	(0.1)	0.1	(0.1)	0.1	0.2	1.1	0.1	0.4
가계대출	0.3	0.5	0.3	0.2	0.3	(0.2)	0.4	0.2
주택담보대출	0.3	0.4	0.4	0.1	0.2	(0.0)	0.2	(0.0)
일반대출	0.2	0.6	0.1	0.2	0.5	(0.5)	1.0	0.8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7 은행계정 수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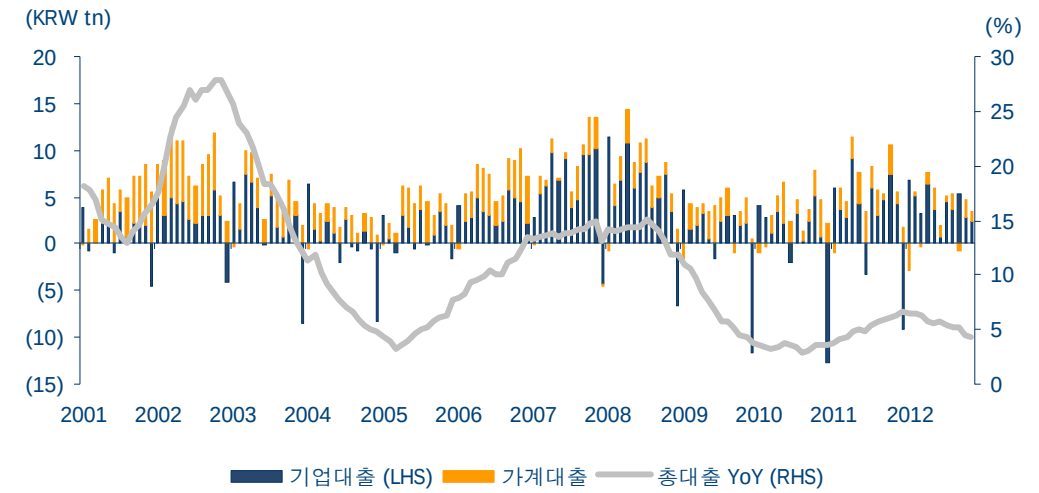
잔액(십억원)	Apr12	May12	Jun12	Jul12	Aug12	Sep12	Oct12	Nov12
은행계정	1,101.8	1,109.3	1,122.0	1,114.9	1,115.5	1,121.8	1,121.6	1,129.3
실세요구불	82.3	74.7	82.1	73.9	73.8	78.9	75.5	75.3
저축성예금	829.8	841.8	850.3	852.6	856.4	858.4	858.1	864.8
정기예금	552.7	557.1	560.8	565.1	568.7	566.2	566.2	567.1
수시입출식	235.7	239.9	243.8	240.9	240.2	243.7	242.1	247.1
CD+RP+표지어음	42.0	41.6	40.2	39.2	36.4	34.5	34.3	33.4
은행채	147.8	151.3	149.9	149.2	149.0	150.0	153.7	155.7

증감액(십억원)	Apr12	May12	Jun12	Jul12	Aug12	Sep12	Oct12	Nov12
은행계정	(15.5)	11.6	13.2	(7.2)	0.7	6.2	(0.2)	7.7
실세요구불	(3.5)	(1.3)	7.4	(8.3)	(0.0)	5.1	(3.3)	(0.2)
저축성예금	(7.7)	10.3	8.5	2.3	3.8	2.0	(0.3)	6.8
정기예금	1.4	5.5	3.7	4.3	3.6	(2.5)	0.0	0.9
수시입출식	(9.8)	4.1	3.9	(2.8)	(0.7)	3.6	(1.6)	5.0
CD+RP+표지어음	(2.5)	(0.4)	(1.4)	(0.9)	(2.9)	(1.9)	(0.2)	(0.9)
은행채	(1.8)	3.0	(1.3)	(0.3)	(0.2)	1.0	3.7	2.0

증가율(%, MoM)	Apr12	May12	Jun12	Jul12	Aug12	Sep12	Oct12	Nov12
은행계정	(1.4)	0.7	1.1	(0.6)	0.1	0.6	(0.0)	0.7
실세요구불	(4.1)	(9.2)	9.9	(10.1)	(0.1)	6.9	(4.2)	(0.3)
저축성예금	(0.9)	1.4	1.0	0.3	0.4	0.2	(0.0)	0.8
정기예금	0.3	0.8	0.7	0.8	0.6	(0.4)	0.0	0.2
수시입출식	(4.0)	1.8	1.6	(1.2)	(0.3)	1.5	(0.7)	2.1
CD+RP+표지어음	(5.5)	(1.0)	(3.4)	(2.3)	(7.3)	(5.2)	(0.5)	(2.6)
은행채	(1.2)	2.3	(0.9)	(0.5)	(0.1)	0.7	2.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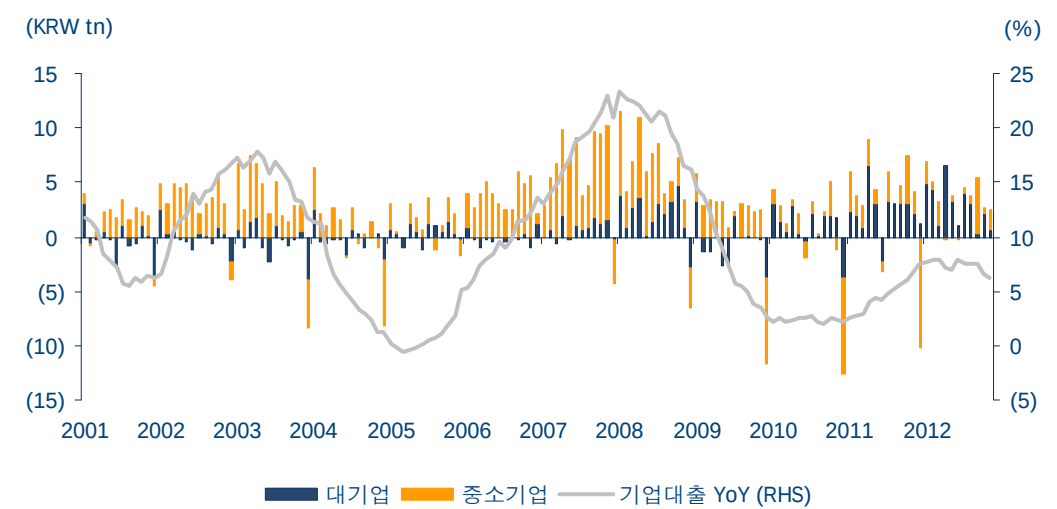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8 은행 대출 -기업,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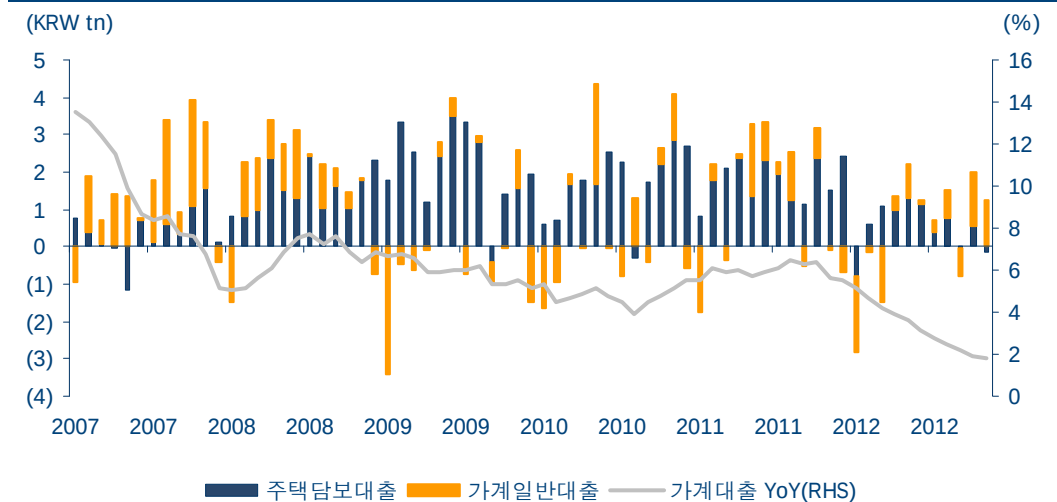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9 은행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대출 증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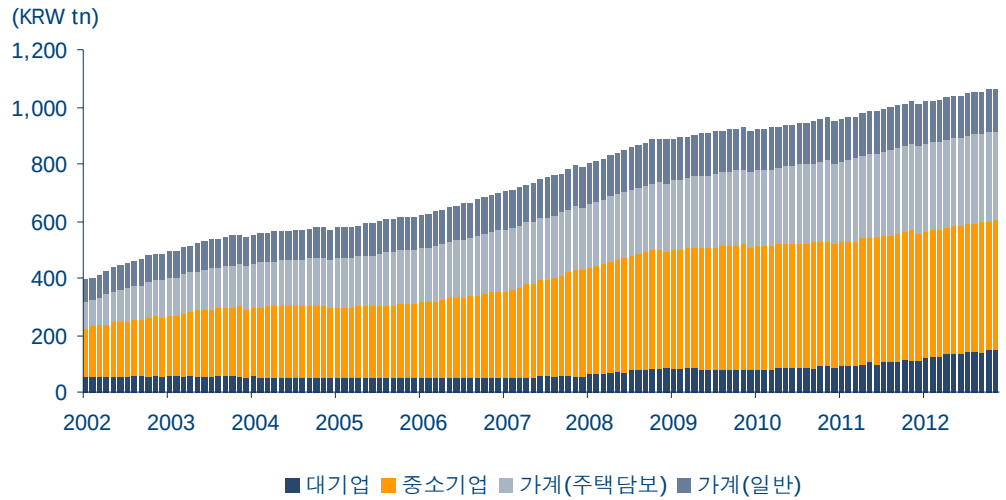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0 은행 가계(주택담보, 가계일반) 대출 증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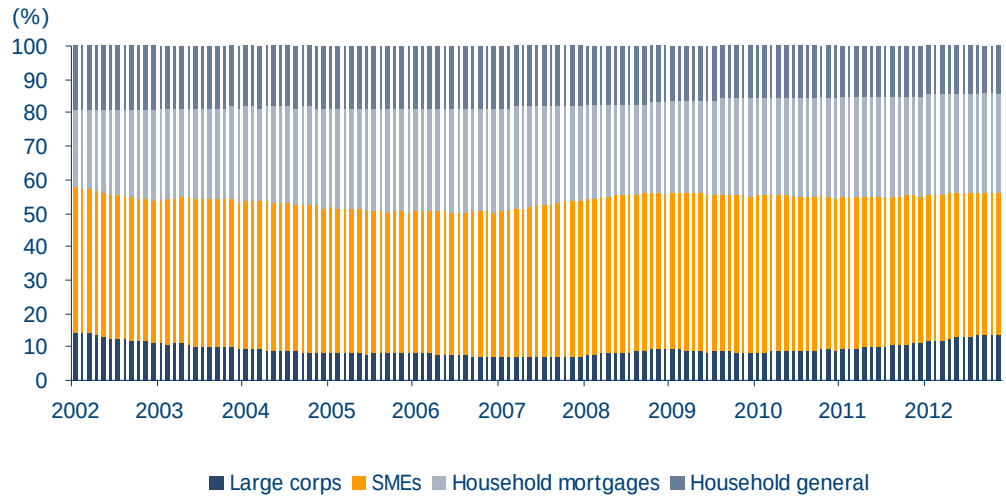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1 은행 대출(기업 및 가계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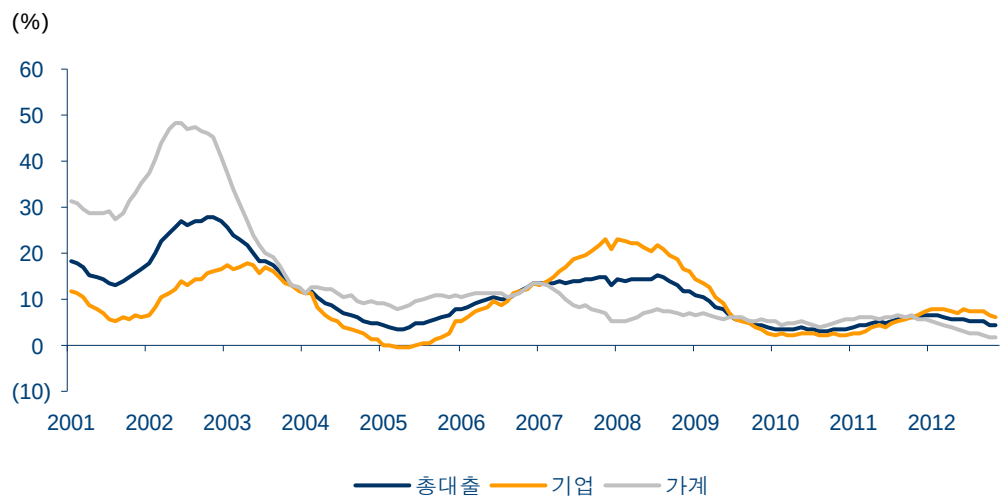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2 은행 대출(기업 및 가계) 잔액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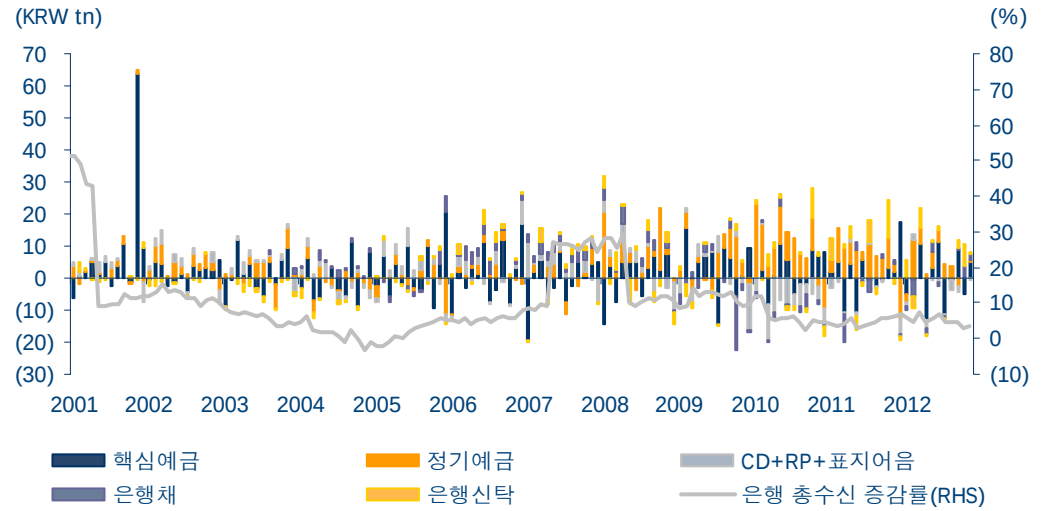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3 은행 대출성장률(YoY, 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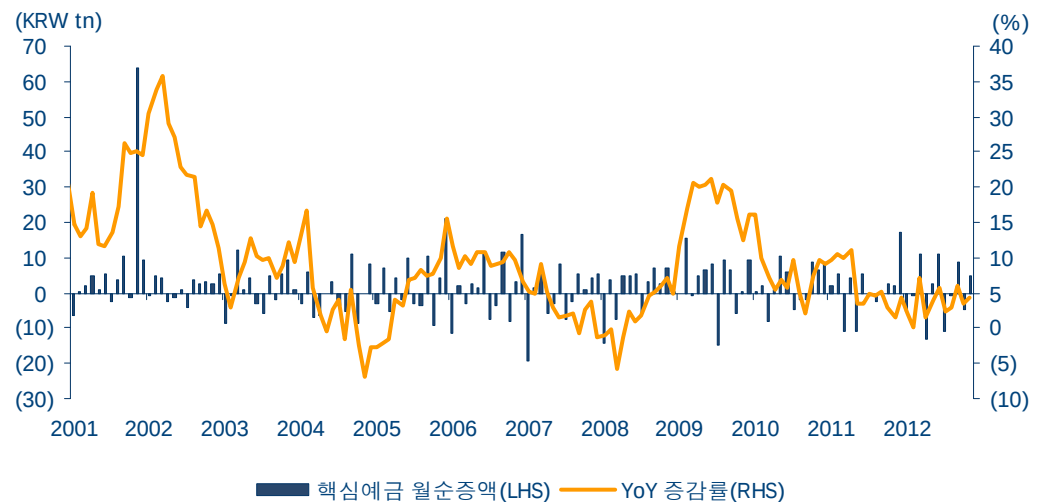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4 은행 총수신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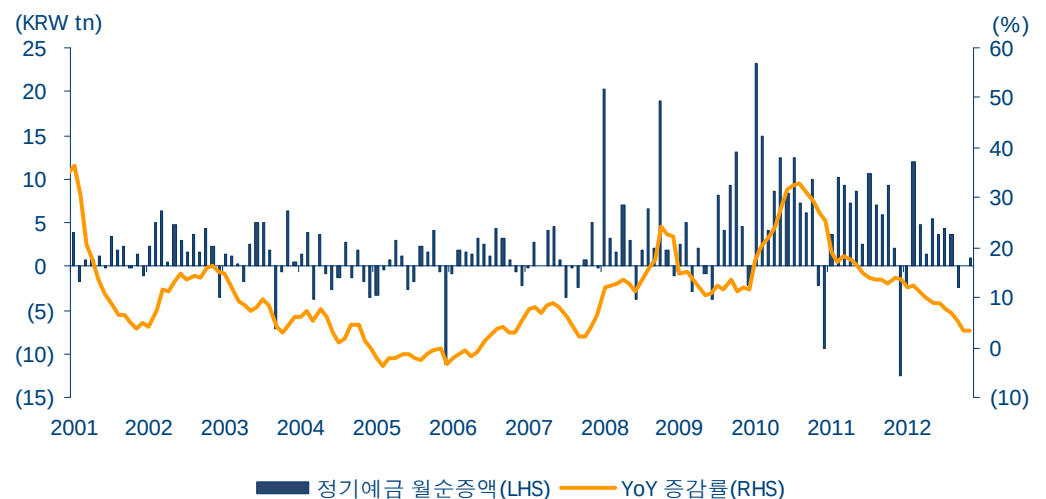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핵심예금 = 실세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예금

Figure 35 은행 핵심예금 월순증액과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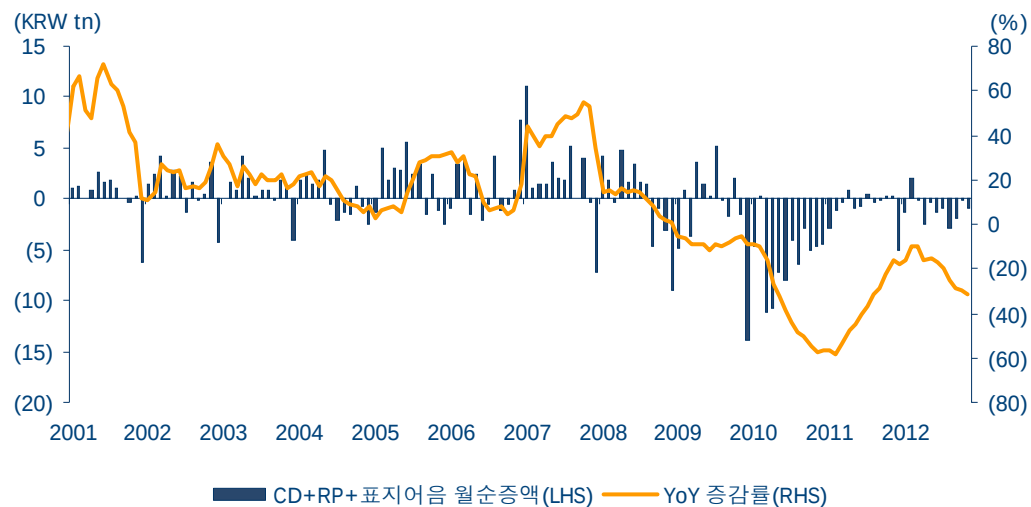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핵심예금 = 실세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예금

Figure 36 은행 정기예금 월순증액과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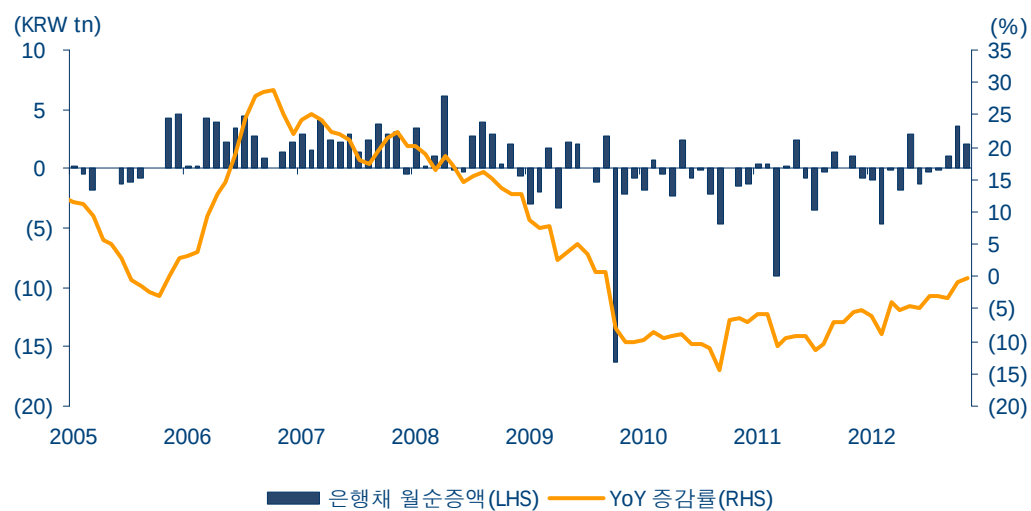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7 은행 CD+RP+표지어음 월순증액과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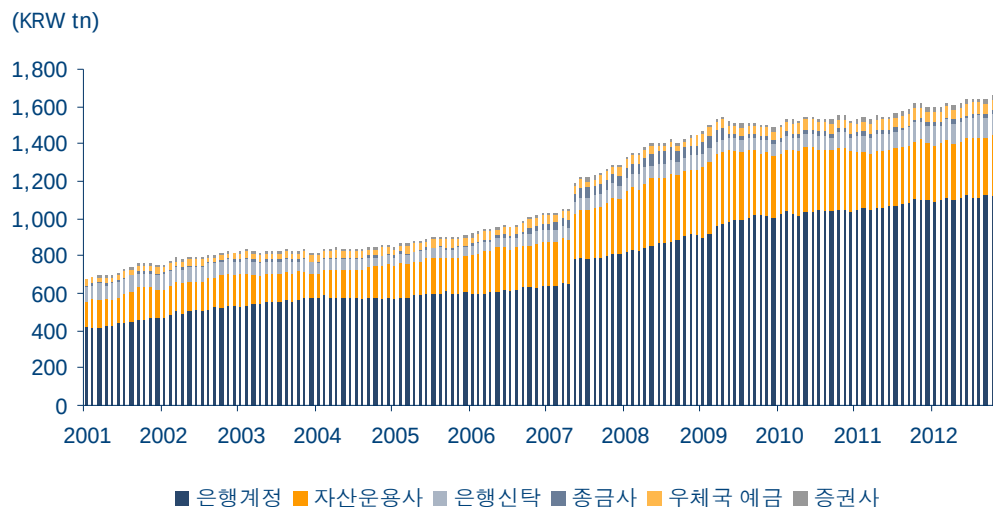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8 은행채 월순증액과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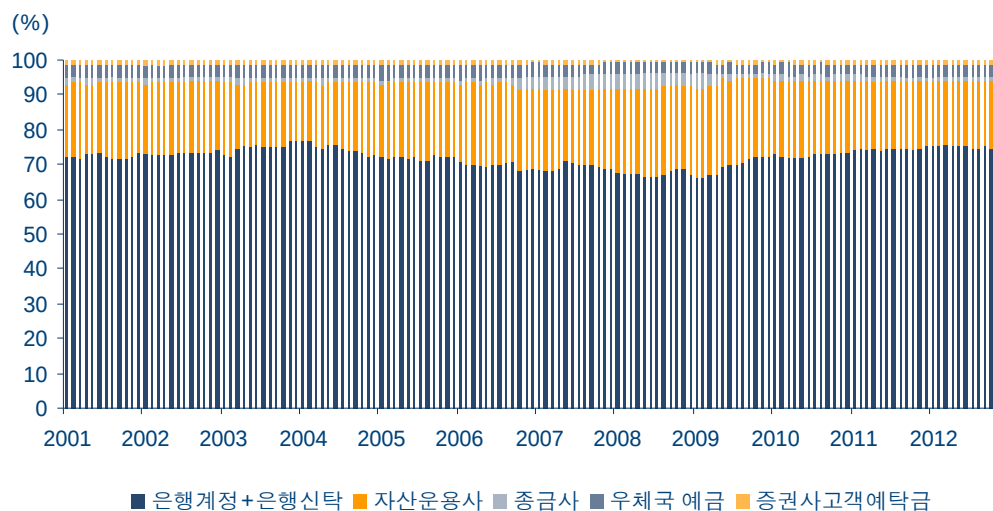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9 금융기관별 수신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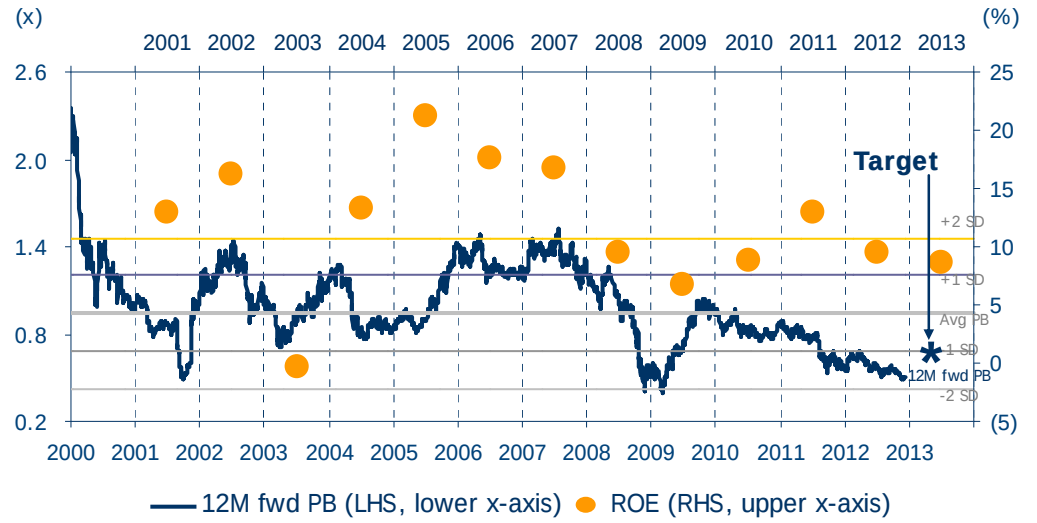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0 금융기관 총수신 잔액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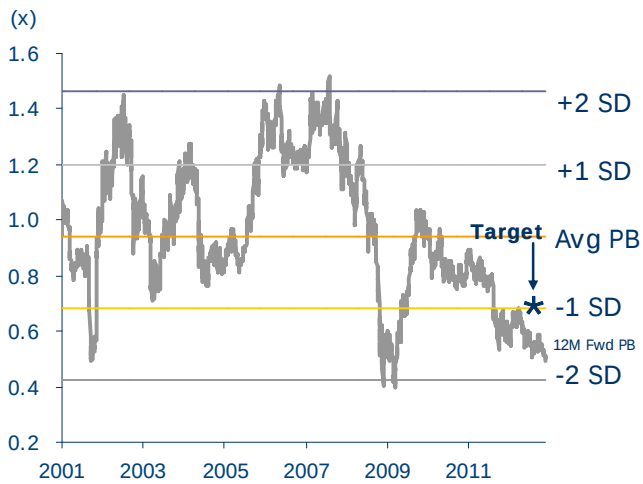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1 은행업종 12M Fwd P/B와 ROE 및 target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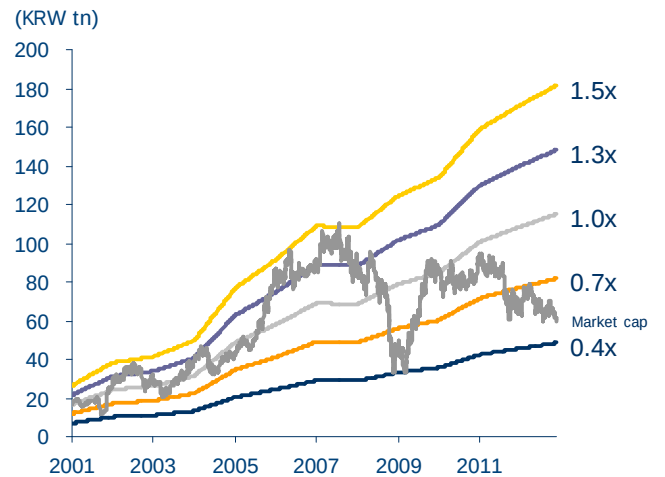
자료: 각 사,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2 은행업종 12M Fwd P/B 및 과거 10년 평균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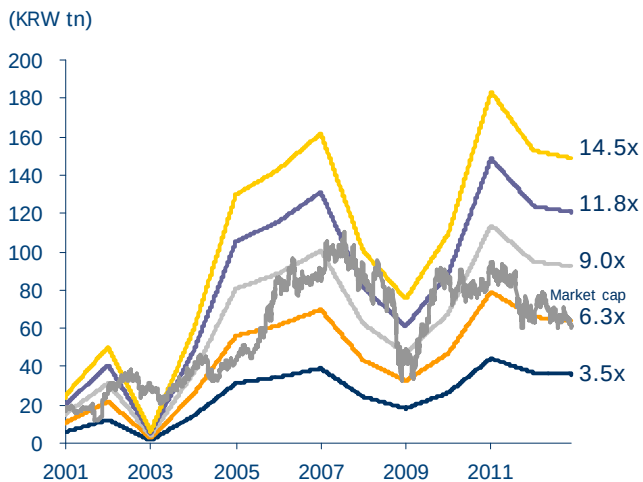
자료: 각 사,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3 은행업종 12M Fwd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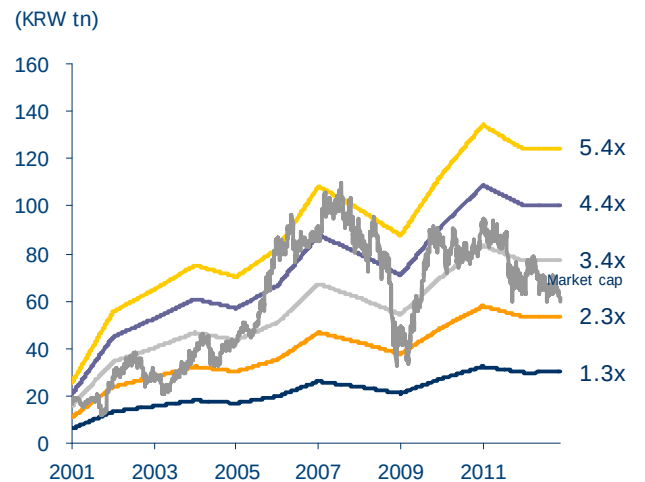
자료: 각 사,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4 은행업종 12M Fwd P/E



자료: 각 사,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5 은행업종 12M FWD P/POP



자료: 각 사,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6 은행주 valuation table

Company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	외환은행	BS금융	DGB금융
Code		055550	105560	053000	086790	024110	004940	138930	139130
Rating		BUY	BUY	BUY	BUY	HOLD	HOLD	BUY	BUY
TP		47,500	48,000	15,000	51,000	12,500	8,000	17,000	18,000
Share price		38,150	37,700	11,350	35,250	11,900	7,380	13,100	14,000
Upside(Downside)		24.5	27.3	32.2	44.7	5.0	8.4	29.8	28.6
Market cap. (KRW bn)		18,091	14,565	9,148	8,568	6,497	4,759	2,533	1,877
Foreign ownership (%)		63.1	64.5	24.3	63.6	12.5	19.6	61.4	74.8
P/BV (x)	2010	0.89	0.81	0.63	0.70	0.73	0.57	0.99	0.92
	2011	0.83	0.64	0.52	0.61	0.58	0.55	0.86	0.82
	2012E	0.69	0.62	0.48	0.52	0.55	0.52	0.77	0.74
	2013E	0.64	0.61	0.46	0.48	0.52	0.48	0.70	0.67
P/E (x)	2010	8.4	164.9	7.7	7.4	5.9	4.7	7.3	8.1
	2011	6.4	6.1	4.3	6.7	5.3	2.9	6.2	5.9
	2012E	7.9	7.5	5.7	4.3	6.5	6.9	6.6	6.4
	2013E	7.4	7.2	5.7	5.6	6.8	6.3	6.4	6.5
Norm. P/E (x)	2010	8.4	25.0	7.7	7.4	5.9	6.3	7.3	8.1
	2011	7.2	6.8	6.3	7.5	5.3	5.2	6.3	5.9
	2012E	8.6	7.5	7.1	7.2	6.5	8.5	6.5	6.4
	2013E	7.4	7.2	5.7	5.6	6.8	6.3	6.4	6.5
P/PPOP (x)	2010	4.6	4.4	1.9	3.6	2.2	2.5	4.1	3.2
	2011	3.9	3.0	1.7	3.6	2.4	1.8	3.7	3.4
	2012E	4.1	3.5	2.0	2.2	2.7	3.0	3.7	3.6
	2013E	3.7	3.4	2.1	2.3	2.7	3.1	3.6	3.4
Div. yield (%)	2010	2.0	0.3	2.2	2.0	3.4	14.7	1.9	2.1
	2011	2.0	1.9	2.2	1.7	4.9	20.5	2.7	2.5
	2012E	2.4	2.0	2.2	1.4	4.0	-	2.7	2.5
	2013E	2.8	2.1	2.2	1.7	3.8	1.4	3.1	2.9
ROE (%)	2010	11.0	0.5	8.5	10.0	13.1	12.5	14.6	12.0
	2011	13.2	11.6	13.3	9.9	12.3	19.5	14.8	14.8
	2012E	9.5	8.4	8.9	13.2	8.8	7.7	12.3	12.1
	2013E	9.1	8.5	8.3	8.9	7.8	7.9	11.5	10.9
ROA (%)	2010	0.9	0.0	0.4	0.7	0.8	1.1	1.0	0.8
	2011	1.1	0.9	0.7	0.7	0.8	1.7	1.1	1.0
	2012E	0.8	0.7	0.5	0.8	0.6	0.6	0.9	0.9
	2013E	0.8	0.7	0.5	0.5	0.5	0.7	0.9	0.8
EPS growth (%)	2010	79.8	(84.3)	16.5	230.0	77.0	14.5	30.2	33.4
	2011	31.2	2,586.8	78.8	10.7	12.3	62.0	17.4	39.0
	2012E	(18.7)	(17.8)	(24.4)	56.0	(18.3)	(58.4)	(5.6)	(9.0)
	2013E	7.7	3.8	(0.4)	(24.1)	(5.5)	10.2	3.3	(0.3)
Norm. EPS growth (%)	2010	79.8	4.0	16.5	230.0	77.0	44.8	30.2	33.4
	2011	16.8	266.9	22.1	(1.7)	12.3	19.3	16.4	39.0
	2012E	(15.9)	(8.9)	(11.9)	5.1	(18.3)	(38.3)	(2.7)	(9.0)
	2013E	16.8	3.8	25.2	26.8	(5.5)	35.5	1.1	(0.3)
PPOP margin (%)	2010	1.7	1.2	1.1	0.8	1.8	2.0	1.9	1.9
	2011	1.8	1.3	1.3	1.4	1.4	1.4	1.7	1.7
	2012E	1.6	1.8	1.6	1.4	2.2	2.0	1.8	2.0
	2013E	1.6	1.5	1.8	1.6	1.8	2.8	1.8	1.8

자료: 각 사,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7 은행주 – 외국인/기관 주별 순매수 추이(2012년)

(십억원)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		외환은행		BS금융		DGB금융		8개사 합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1월 첫째주 (2-6)	(12)	15	24	(38)	5	(1)	(6)	(2)	(18)	(41)	(6)	1	1	2	4	(1)	(8)	(65)
1월 둘째주 (9-13)	(58)	29	14	39	6	10	(41)	16	3	5	12	(2)	6	3	5	0	(53)	100
1월 셋째주 (16-20)	37	104	84	128	5	38	1	33	(17)	36	11	0	15	7	2	2	138	348
1월 넷째주 (25-27)	54	(16)	75	3	11	8	42	(13)	14	(3)	7	0	9	(4)	4	(1)	216	(26)
1월 다섯째주(30-31)+2월 첫째주(1-3)	52	8	108	(14)	6	46	(8)	1	25	19	2	(6)	13	(6)	3	0	201	48
2월 둘째주 (6-10)	8	(30)	38	3	(22)	52	8	(6)	30	(16)	2	(6)	14	(11)	2	0	80	(14)
2월 셋째주 (13-17)	52	(93)	51	(73)	(11)	21	(133)	108	(6)	(12)	3	(5)	2	8	(1)	2	(43)	(44)
2월 넷째주 (20-24)	17	(9)	(25)	(48)	12	(12)	46	(51)	1	(28)	7	(6)	6	1	(2)	2	62	(151)
2월 다섯째주(27-29)+3월 첫째주(2)	(8)	(17)	16	(3)	(7)	10	11	(29)	(23)	27	2	(3)	17	(10)	1	2	9	(23)
3월 둘째주 (5-9)	(28)	(19)	(9)	(5)	6	(7)	44	11	(28)	50	(10)	0	1	(5)	(6)	17	(30)	42
3월 셋째주 (12-16)	34	19	(14)	128	16	45	54	(7)	(4)	38	4	4	0	4	(4)	8	86	239
3월 넷째주 (19-23)	43	(48)	(25)	84	7	(4)	9	29	(2)	13	3	(3)	(3)	3	(1)	1	31	75
3월 다섯째주 (26-30)	17	(46)	(2)	(54)	15	(11)	26	(16)	(8)	(2)	(3)	4	(10)	(8)	(3)	0	32	(133)
4월 첫째주 (2-6)	(25)	2	6	184	5	(3)	72	37	1	(17)	(2)	3	(15)	11	0	0	42	217
4월 둘째주 (9-10, 12-13)	1	(29)	33	(25)	5	(13)	12	(1)	(1)	(4)	1	2	1	(1)	(10)	6	42	(65)
4월 셋째주 (16-20)	12	(47)	3	(23)	4	(4)	(84)	42	(1)	(4)	7	(2)	3	1	1	0	(55)	(37)
4월 넷째주 (23-27)	(30)	(2)	18	(44)	10	(3)	4	4	1	(3)	5	0	(3)	(4)	(1)	0	4	(52)
4월 다섯째주 (30) + 5월 첫째주 (2-4)	(2)	5	(33)	(12)	(1)	5	6	(6)	0	2	(1)	1	(10)	6	2	(3)	(39)	(2)
5월 둘째주 (7-11)	34	(21)	(50)	18	(4)	16	(24)	18	(7)	6	(3)	4	5	3	0	1	(49)	45
5월 셋째주 (14-18)	2	(10)	(5)	(21)	15	(44)	(1)	(9)	(6)	6	(7)	21	11	(8)	1	0	10	(65)
5월 넷째주 (21-25)	(22)	8	(49)	48	(4)	22	3	(1)	(1)	(1)	(3)	8	4	1	(2)	0	(74)	85
5월 다섯째주(29-31)+6월 첫째주(1)	(17)	8	(29)	31	14	(6)	(3)	5	(6)	7	(1)	0	(6)	2	1	(1)	(47)	46
6월 둘째주 (4-5, 7-8)	0	28	(14)	50	17	5	9	11	8	4	(7)	17	(4)	8	0	1	9	124
6월 셋째주 (11-15)	16	22	11	35	12	3	10	(30)	20	(8)	(29)	27	(1)	6	(3)	0	36	55
6월 넷째주 (18-22)	11	(21)	8	(15)	15	(24)	10	(28)	(2)	(5)	10	(4)	2	(2)	(10)	0	44	(99)
6월 다섯째주 (25-29)	10	(22)	(35)	(26)	11	6	(3)	8	(5)	6	(6)	7	0	4	0	1	(28)	(16)
7월 첫째주 (2-6)	20	(15)	(14)	24	19	(29)	9	10	(5)	2	0	2	0	1	2	0	31	(5)
7월 둘째주 (9-13)	(28)	(27)	(3)	(33)	2	(14)	(20)	(9)	(10)	10	(1)	(1)	(4)	5	0	0	(64)	(69)
7월 셋째주 (16-20)	(20)	(51)	(2)	(69)	22	(46)	(14)	(5)	(3)	(2)	(2)	1	(2)	3	2	(2)	(19)	(171)
7월 넷째주 (23-27)	(38)	(11)	(38)	24	4	(12)	42	(3)	(7)	8	(2)	2	(6)	0	10	(9)	(35)	(1)
7월 다섯째주(30-31)+8월 첫째주(1-3)	38	(28)	0	38	0	(6)	47	(36)	(1)	0	11	2	2	(17)	1	(6)	98	(53)
8월 둘째주 (6-10)	44	(3)	50	35	35	(11)	59	(25)	5	(6)	15	2	3	(1)	4	(1)	215	(10)
8월 셋째주 (13-17)	35	(2)	44	(29)	25	(14)	28	(29)	4	6	5	0	5	4	2	(1)	148	(65)
8월 넷째주 (20-24)	29	(29)	1	27	(11)	5	(8)	(10)	0	1	2	1	4	0	0	(2)	17	(7)
8월 다섯째주 (27-31)	(7)	(13)	16	(1)	0	(9)	0	(13)	(2)	(2)	4	0	4	1	1	(2)	16	(39)
9월 첫째주 (3-7)	(14)	(12)	19	(7)	5	3	0	(12)	(8)	(2)	1	(1)	5	(4)	5	0	13	(35)
9월 둘째주 (10-14)	30	(4)	11	70	(1)	1	7	(15)	(19)	11	8	(4)	12	(14)	1	2	49	47
9월 셋째주 (17-21)	46	23	28	3	19	(20)	57	(44)	12	10	3	(1)	2	4	(5)	8	161	(16)
9월 넷째주 (24-28)	55	(56)	15	(5)	4	(31)	(23)	(54)	11	(11)	(2)	4	(1)	(3)	(3)	5	56	(151)
10월 첫째주 (2, 4-5)	28	(17)	(8)	(6)	(9)	4	(24)	4	(0)	1	0	(0)	5	1	(2)	(1)	(10)	(15)
10월 둘째주 (8-12)	51	(50)	28	(41)	8	(30)	(44)	(4)	(2)	(11)	(1)	(2)	(1)	3	1	(0)	40	(135)
10월 셋째주 (15-19)	32	(1)	18	19	10	(1)	(23)	35	(2)	(3)	(7)	2	1	1	(3)	1	25	52
10월 넷째주 (22-26)	12	(13)	11	(26)	8	(5)	(77)	40	2	(8)	(8)	1	4	(3)	(1)	(0)	(51)	(15)
10월 다섯째주(29-31)+11월 첫째주(1-2)	(1)	6	(10)	2	10	(13)	(36)	45	1	9	1	1	6	(6)	(0)	2	(29)	45
11월 둘째주 (5-9)	(20)	(16)	(9)	(21)	(7)	(2)	(37)	43	(9)	1	(5)	(2)	(6)	3	(3)	(3)	(96)	3
11월 셋째주 (12-16)	(8)	(7)	(17)	(1)	(1)	(3)	(26)	25	(5)	(7)	(15)	3	(1)	2	5	(4)	(68)	7
11월 넷째주 (19-23)	(24)	9	(4)	(15)	(3)	(6)	14	(2)	(4)	(4)	(1)	(1)	0	0	3	(2)	(19)	(22)
11월 다섯째주 (26-30)	(39)	21	(30)	30	(0)	(2)	39	(8)	(5)	6	1	3	5	(1)	4	(1)	(25)	50
12월 첫째주 (3-7)	5	(0)	35	(29)	13	6	30	(16)	(6)	2	1	(0)	13	(6)	7	(0)	98	(44)
12월 둘째주 (10-13)	20	53	18	2	12	48	29	7	7	(2)	(0)	(1)	11	(4)	2	(1)	98	102
연초 이후	419	(478)	306	366	286	(85)	32	55	(80)	84	6	74	94	(10)	8	20	1,070	26

자료: KRX,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ecommendations

종목별 투자 의견 (12개월 기준)

Buy : 현재가 대비 목표주가 +10% 초과
Hold : 현재가 대비 목표주가 ±10% 이내
Reduce : 현재가 대비 목표주가 -10% 초과
단, 업종 투자 의견에 의한 ±10% 내의 조정치 감안 가능

업종별 투자 의견

Overweight : 현 업종지수 대비 +10% 초과
Neutral : 현 업종지수 대비 ±10% 이내
Underweight : 현 업종지수 대비 -10% 초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 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 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강혜승 차인환

종목	담당자	담당자 보유주식수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종목	계열사 담당자	자사주 종류
		종류	수량	취득가	취득일				
REMARK:Korean analyst is only responsible for Korean securities and relevant sectors only.									